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쓰촨(四川)성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이상훈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오종혁 전문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최지원 연구원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쓰촨(四川)성

요약

- ▶ [쓰촨성 내수용 수입] 쓰촨성은 총수입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30.8%)이 중국 평균(56.6%)에 비해 크게 낮으며, 내수용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8%)도 중국 평균(15.7%)을 크게 하회하는 특징을 보임.
 - 쓰촨성은 가공무역 수입의 비중(43.6%)이 내수용 수입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IT 제조기업들이 대거 이전해오면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 내수용 수입은 가공단계별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24.5%)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26.7%)에, 업종별로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6.4%)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3.4%)에 집중
- ▶ [한국의 수출]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은 2010년 이후 IT부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위주로 한 중간재 수출이 늘면서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됨. 2014년 내수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9% 수준임.
 -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은 가공단계별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59.7%)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28.8%), 업종별로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52.7%)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30.6%)에 집중
- ▶ [수입시장 내 경쟁]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분석을 통하여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가공단계별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서, 업종별로는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냄.
- ▶ [정책적 시사점] 쓰촨성은 내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이 크고, 유통·소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비 잠재력이 큼. 따라서 쓰촨성이 가지고 있는 기회요인을 극대화시켜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즉 중국 서남지역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지역으로서 청두시 활용, 냉장물류망(콜드체인) 등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 수출 품목의 다변화, 정부간 협력 강화, 현지 인프라 활용 강화 등의 방안임.
 - 쓰촨성을 포함한 중국 서남지역에서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청두시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두시는 2016년까지 시내 6개 지역에 수입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면세점을 개장할 계획인데, 이러한 현지 유통망을 수출기업이 활용함으로써 한국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국제품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최근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안전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망 미비가 농식품 수출 확대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따라서 농식품의 품질경쟁력 및 신선도 유지,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냉장물류망(콜드체인) 구축이나 물류비용 보조, 물류창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긴요
 - 지난 2015년 5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쓰촨성 정부는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부간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통관, 지식재산권 침해 등 현지 내수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채널로 정부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8

차 례

1. 서론
2.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 가. 가공단계별 시장
 - 나. 업종별 시장
3. 한국의 대(對)쓰촨성 내수용 수출시장 현황
 - 가.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수출
 - 다. 업종별 수출
4. 주요국의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 가. 주요국의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다. 업종별 경쟁 현황
5.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본고는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분석 시리즈의 하나로, 쓰촨성의 내수용 수입시장을 분석

- 중국 내 경제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교역특성이 상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각 지역(省)별 내수용 수입시장 동향과 변화 추이를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
- 중국 내 주요 지역(省)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업종별 수입 동향과 수입시장 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간의 경쟁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의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
-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동북의 4대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로 한국의 내수용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省)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

쓰촨성 개황

- 쓰촨성은 중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칭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위경 제권(成渝经济圈) 조성을 통해 주강(珠江)삼각주, 장강(长江)삼각주, 환발해 경제권과 더불어 중국 4대 경제권으로 부상 중²⁾
- 쓰촨성은 △IT △기계 △석유화학 △농식품 △관광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그 밖에 바나듐(vanadium), 티타늄(titanium),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자원 채굴·가공업도 발달
- 주요 도시로는 청두(成都), 댜양(绵阳), 즈양(资阳) 등이 있으며, 그중 산업기반과 인프라가 우수한 청두시를 중심으로 대외교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집중

<쓰촨성의 위치>



<주요경제지표>

항목	2010년	2012년	2014년	중국 내 순위
GRDP(억 위안)	17,185	23,872	28,536	8
GRDP 성장률(%)	15.1	12.5	8.5	19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13,116	17,039	23,318	8
소비재 판매액(억 위안)	6,810	9,268	12,392	7
FDI(억 달러)	60.2	98.0	103.6	10
수출입 총액(억 달러)	327.7	591.2	702.5	14
수출	188.4	384.6	448.5	12
수입	139.3	206.6	254.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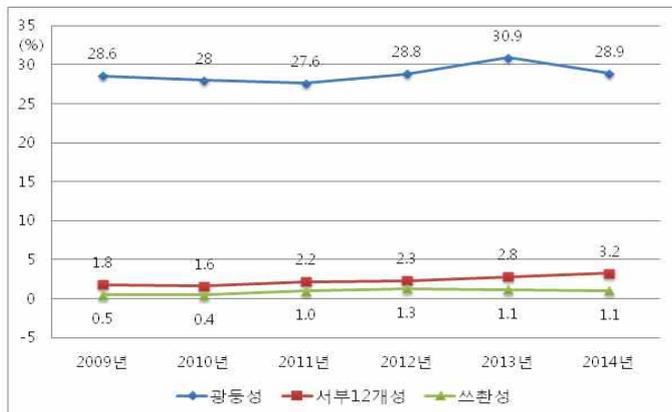
자료: 저자 편집.

주: 중국 수출입 통계는 지역별 해관통계와 CEIC 데이터 간 일부 차이가 있음. 2장부터는 해관통계 사용; 순위는 2014년 중국 내 31개 성(省)에서의 순위.
자료: CEIC, 각연도 四川省对外贸易统计资料 참조.

1) 대부분 관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과 달리 일반무역은 관세를 납부하고 거래되는 일반적인 무역방식임. 일반무역 형태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가공단계를 거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고에서는 '내수용 수입(또는 수출)'이라는 용어로 대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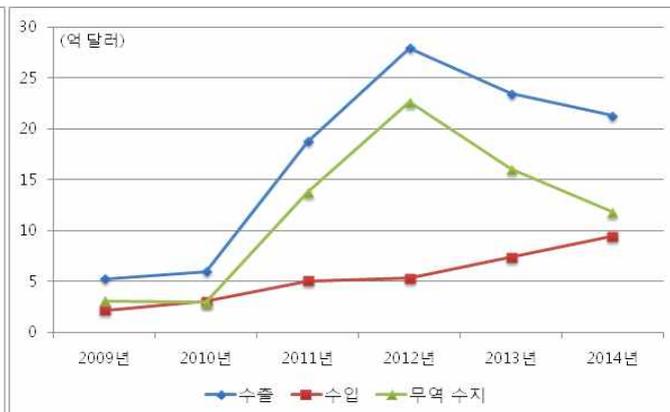
- [대외무역] 2014년 쓰촨성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702억 5,000만 달러로 중국 총 교역액의 1.1%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3.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중국 평균(14.3%)을 크게 상회
 -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소재한 IT 제조기업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쓰촨성으로 이전해오면서 대외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³⁾
 - 쓰촨성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 미국 △ 홍콩 △ 말레이시아 △ 네덜란드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 미국 △ 말레이시아 △ 한국 △ 일본 △ 대만 등임.
 - 쓰촨성의 주요 수출 품목은 PC(노트북, 태블릿)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부품과 장신구 등임⁴⁾
 - 한국은 2010년 이후 쓰촨성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쓰촨성의 3대 교역국으로 급부상
 - 한국은 IT 부품, 화학제품 위주로 수출이 급증한 반면, 수입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 중국 전체 무역액 대비 쓰촨성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2. 한국의 대쓰촨성 무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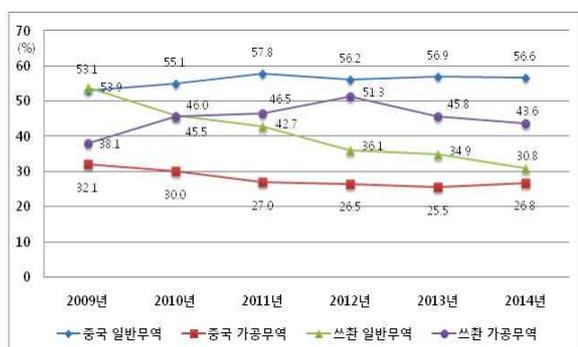
- [총수입] 쓰촨성 총수입은 2005~14년 연평균 22.8%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총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
 - 2005~10년 연평균 31.3% 증가했던 쓰촨성의 총수입은 201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12.9%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7.8% 증가에 그쳐 둔화세를 지속함.
 - 같은 기간 중국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6.1%(2005~10년), 8.9%(2010~14년, 최근 5년), 모든 기간 쓰촨성의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이 중국 평균을 상회
 - 2010~14년 쓰촨성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8.9%)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쓰촨성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0.8%에서 2014년 1.0%로 소폭 확대됨.
 - 같은 기간 중국의 총 교역에서 쓰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0.97%에서 1.33%로 소폭 확대

2) 오종혁(2012), 「쓰촨성 청두시(四川省 成都市) 소비시장 분석」, p. 1,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오종혁, 박현정(2014),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쓰촨성 상무청(2015. 11. 20), 「四川省对外贸易统计资料2015年1-10月」.

■ [무역방식별 수입] 중국의 총수입은 일반무역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인 데 반해 쓰촨성은 가공무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쓰촨성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9년 38.1%에서 2014년 43.6%까지 상승하였으며, 2009년 53.9%에 달하던 일반무역 비중은 2014년 30.8%까지 축소됨.
- 같은 기간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32.1%에서 26.8%로 점차 축소된 반면, 일반무역 비중은 53.1%에서 56.6%로 증가
- 2005년 쓰촨성 전체 무역액의 13.9%에 불과하던 가공무역은 매년 그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10년부터 일반무역 비중을 상회
- 일반무역 비중은 2009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타무역은 2009년 8억 달러에서 2014년 64억 9,000만 달러로 5년 만에 8배 이상 증가

그림 3. 쓰촨성의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의 비중 추이



자료: 각 연도 중국해관통계.

표 1. 쓰촨성의 무역방식별 수입액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수입	100.7	139.3	187.4	206.6	226.4	254.0
일반무역	54.3	64.1	80.0	74.6	79.0	78.3
가공무역	38.4	63.4	87.1	106.0	103.6	110.8
기타무역	8.0	11.8	20.3	26.0	43.8	64.9

자료: 쓰촨성 상무청(<http://www.sccom.gov.cn>).

2.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가. 가공단계별 시장

■ [총수입 구조] 쓰촨성 총수입은 가공단계로 구분할 때 중간재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음. 특히 중간재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5% 증가하면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73%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중간재 교역이 감소하는 중국 총수입 구조와는 상반됨.

- 중간재를 세부 품목으로 나뉘보면 반제품보다 부품·부분품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그중에서도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수입은 연평균 22.7% 증가하면서 총수입의 56.9%까지 비중이 확대됨.
-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전체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9%에서 2014년 3.1%로 증가

5) 인텔(Intel), TI(Texas Instruments), 폭스콘(Foxconn), 위스트론(Wistron) 등 글로벌 IT 제조기업들이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제조공정을 쓰촨성으로 이전하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 대한 수입도 최근 5년간 연평균 37.4% 증가하면서 쓰촨성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확대
- 중간재 중 반제품에 대한 수입은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나, 증가율은 쓰촨성 평균(17.7%)을 하회
- 일차상품에 대한 수입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8%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6.5%에서 2014년 3.8%로 축소됨.
- 최종재에 대한 수입은 자본재에 집중되었으나, 수입증가율(13.5%)이 쓰촨성 평균을 하회하면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5.3%에서 2014년 2.1%로 4.2%p 축소됨.
- 자본재 수입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18.8%)에 집중
- 소비재 수입이 쓰촨성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며,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 불과

■ [내수용 수입구조]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총수입과 비교할 때 중간재 비중이 줄어든 대신 일차상품과 최종재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임.

- 총수입에서의 중간재 비중(73.0%)에 비해 내수용 수입에서의 중간재 비중(54.7%)이 18.3%p 낮아짐.
- 내수용 중간재 수입의 경우 총수입과는 달리 반제품의 구성비가 높으며, 부품·부분품에서도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의 비중이 총수입에 비해 8.4%p 높음.
- 중간재 가운데 반제품에 대한 연평균 수입증가율(4.4%)은 쓰촨성 평균을 하회한 반면, 부품·부분품에 대한 연평균 수입증가율(12.2%)은 쓰촨성 평균을 두 배 이상 상회
- 총수입과 비교할 때 일차상품의 비중이 7.6%p 높았으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총수입(5.8%)과 쓰촨성 평균(5.8%)을 하회함.
- 일차상품 수입 중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0.2%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반면 미가공 연료·윤활유에 대한 수입은 연평균 30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 비중이 총수입에 비해 모두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비재의 경우 비중이 3개 가까이 확대
- 소비재의 경우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승용차를 제외한 기타 소비재 품목들은 최근 5년간 쓰촨성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대비] 중국 전체와 비교할 때 쓰촨성은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5.8%에 그치면서 전국 평균(15.7%)을 크게 하회

- 쓰촨성의 내수용 수입에서 부품·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중국 평균보다 16.1%p 높았으며, 자본재의 비중도 27.8%로 중국 평균보다 17%p 높은 수준임.
- 내수용 수입에서 미가공 산업용 연료·윤활유,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일부 소비재 등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증가율이 중국 평균(15.7%)을 크게 하회
-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일차상품의 비중은 중국 평균이 38.9%인 데 반해 쓰촨성은 11.4%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도(4.1%) 중국 평균(16.7%)에 크게 못 미침.

표 2. 쓰촨성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가율

분류	쓰촨성 총수입			쓰촨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3.8	5.8	0.2	11.4	4.1	0.2	38.9	16.7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7	5.9	0.3	2.3	11.4	0.3	4.2	18.4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2.7	3.0	0.3	7.9	-0.2	0.3	15.6	12.3
미가공 연료·윤활유	0.4	308.6	0.0	1.2	308.7	0.0	19.1	20.8
중간재	73.0	20.5	1.8	54.7	8.3	1.0	36.0	11.8
반제품	10.8	8.4	0.5	24.8	4.4	0.7	22.1	10.5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52.2	0.1	0.1	4.5	0.1	0.9	7.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0.6	8.3	0.6	24.5	4.4	0.8	18.9	9.9
가공된 연료·윤활유	0.1	6.3	0.0	0.2	11.9	0.1	2.3	17.5
부품·부분품	62.3	23.6	3.0	29.9	12.2	1.4	13.8	14.0
자본재 부품·부분품	56.9	22.7	3.1	16.1	2.6	1.0	10.3	13.9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5.4	37.4	2.3	13.8	39.0	2.5	3.5	14.4
최종재	23.1	13.1	1.2	33.7	3.2	1.1	20.4	16.8
자본재	21.1	13.5	1.7	27.8	1.9	1.6	10.8	10.5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8.8	14.6	1.7	26.7	4.3	1.7	10.3	12.0
산업용 운송장비	2.3	6.7	1.9	1.1	-21.4	1.4	0.5	-7.0
소비재	2.0	9.0	0.3	5.9	10.4	0.4	9.6	27.7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1	67.7	0.3	0.4	64.2	0.3	0.8	28.6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2	14.3	0.1	0.5	17.2	0.2	1.4	27.4
승용차	0.7	-4.3	0.3	2.2	-4.5	0.3	5.1	31.9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81.1	1.0	0.1	79.9	1.1	0.0	40.6
내구소비재	0.2	44.8	0.4	0.4	57.9	0.7	0.4	20.8
반내구소비재	0.4	15.4	0.6	1.3	23.8	0.9	0.9	23.2
비내구소비재	0.4	28.7	0.4	1.1	48.5	0.7	1.0	18.0
미분류	0.1	-11.6	4.4	0.2	-11.6	0.0	4.7	99.6
전체								
비중(또는 증가율)	100.0	17.7	1.2	100.0	5.8	0.6	100.0	15.7
금액(억 달러)	227.1	-	-	71.2	-	-	11,095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품목별 내수용 수입] 쓰촨성은 자동차, 화학, 전자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며, 단일 품목으로는 기어박스, 액정디스플레이(LCD), 니켈매트(Nickle Mattes) 등의 비중이 큼.

- 중간재 중에서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38.8%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1차 금속 제조업이 22.1%,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이 15.4%를 점유
 - 쓰촨성 내수용 중간재 수입에서 최근 5년간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수입이 연평균 12.5% 증가하고,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이 38.7% 증가한 데 반해 1차 금속 제조업은 -12.8%의 증가율을 기록
 - HS-6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별로는 니켈매트(HS 7501.10), 화학목재펄프(HS 4703.21, HS 4703.19), 혼합크실레이성체(HS 2902.44)에 대한 수입이 컸음.
- 자본재 부품·부분품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85%에 달함
 - 품목별로는 반도체(HS 8542.29)와 파이프·보일러 장치(HS 8481.80)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았음.
-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의 80.6%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4.4%를 기록할 정도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

- 기어박스(HS 8708.40)와 차량용 실린더(HS 8407.33), 자동차용 차체의 부품(HS 8708.29)에 대한 수입은 쓰촨성 내수용 수입의 7.7%를 차지

표 3. 쓰촨성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시장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세부 업종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
중간재 (54.7)	반제품 (24.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24.5)	1차 금속 제조업	386	22.1	-12.8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269	15.4	38.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677	38.8	12.5
	부품·부분품 (29.9)	자본재 부품부분품 (16.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68	40.8	-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506	44.2	9.5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13.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794	80.6	54.4	
최종재 (33.7)	자본재 (27.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27.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12	16.4	3.4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괄호 안의 수치는 쓰촨성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쓰촨성의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 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코드	품목명	수입액 (억 달러)	중간재 및 최종재 내 비중(%)	해당 업종
1	8708.40	기어박스	2.6	6.7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2	9013.80	액정디스플레이(LCD)	2.3	9.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	7501.10	니켈매트(Nickle Mattes)	1.8	4.6	1차 금속 제조업
4	8407.33	차량용 실린더(250cc 초과 1,000cc 이하)	1.7	4.3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5	8481.80	파이프·보일러·탱크 등의 장치	1.3	3.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6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2	3.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7	4703.21	화학목재펄프(침엽수류의 것)	0.9	0.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8	2902.44	혼합 크실렌 이성체	0.9	0.2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9	8542.29	반도체(IC회로)	0.9	0.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0	4703.19	화학목재펄프(활엽수류의 것)	0.8	0.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업종별 시장

■ [총수입 구조] 총수입에서 제조업이 97.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가운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분야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 총수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9.6%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면서 그 비중은 2014년에 60.9%까지 확대됨.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은 2009년 총수입시장의 18.3%를 점유했으나, 이후 점차 비중이 하락하면서 2014년 6.7%를 기록함.
- 그 밖에 최근 5년간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68.9%), 화학물질·제품 제조업(35.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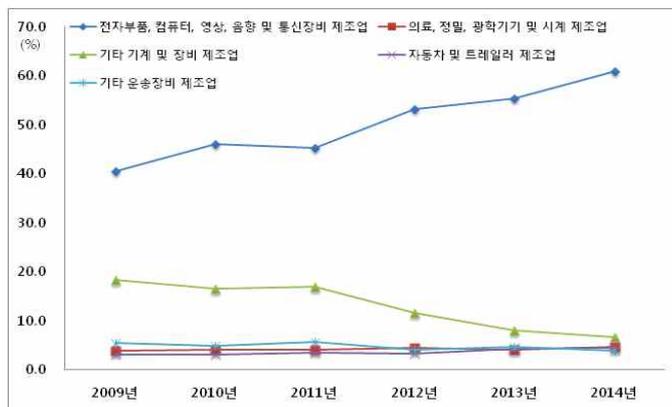
제조업(31.5%)에서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 [내수용 수입구조]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91.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수입증가율(6.6%)도 쓰촨성 평균(5.8%)을 상회

- 수입 비중이 가장 큰 5대 업종은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6.4%)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3.4%)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11.5%)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9.7%) △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8.3%)임.
- 수입 비중 상위 5대 업종 중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쓰촨성 평균을 모두 상회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율(-2.2%)을 보이면서 그 비중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 수입 비중 상위 5대 업종의 경우 각 업종별 중국 내 비중이 2% 미만에 불과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총수입에서 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내수용 수입에서는 그 비중이 크게 낮아져 11.5%를 점유하는 데 그침.
- 이는 IT 제조기업의 쓰촨성 진출이 확대되면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 가공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
- 최근 5년간 △ 담배 제조업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은 49.0% 이상의 높은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각 업종별 수입 비중은 대체로 1% 이하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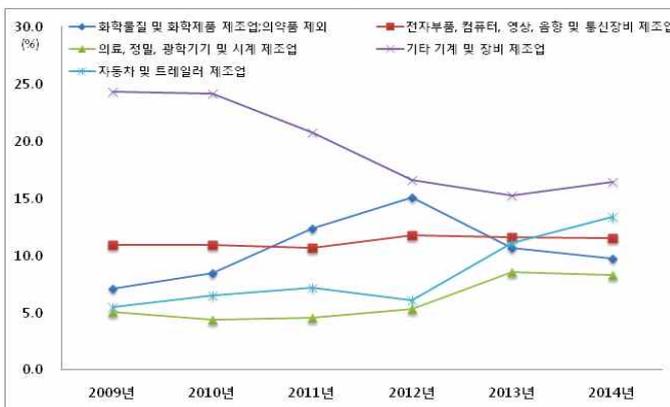
그림 4. 쓰촨성의 주요 업종별 수입 비중 추이

(1) 총수입



자료: 중국 해관통계.

(2) 내수용 수입



자료: 중국 해관통계.

■ [전국 대비]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은 중국 전체에 비해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수입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6%에 불과함.

-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5대 업종 가운데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 기가시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 수입증가율이 높은 업종임.
- 담배 제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282.8%에 달하였으나, 수입액이 264만 달러에 불과해 수입 비중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 가구 제조업은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입이 연평균 53.7% 증가하면서 중국 내 비중도 2009년 0.6%에서 2014년 2.3%로 확대됨.
-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업종별 중국 내 비중이 2% 이상으로,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5. 쓰촨성의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감률(업종별)

분 류	쓰촨성 총수입			쓰촨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0.9	17.7	0.4	2.8	15.6	0.4	4.4	18.9
광업	1.8	9.7	0.3	5.8	-5.0	0.3	11.2	12.3
금속 광업	1.7	-0.6	0.3	5.3	-4.6	0.3	10.6	12.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2	-0.8	0.5	0.5	-9.0	0.6	0.5	19.6
제조업	97.3	1.8	1.1	91.4	6.6	0.7	80.1	14.9
식품 제조업	0.4	18.4	0.0	1.2	5.6	0.2	3.9	21.9
음료 제조업	0.1	8.7	0.4	0.2	7.8	0.7	0.1	22.2
담배 제조업	0.0	18.5	0.1	0.0	282.8	0.2	0.1	16.0
섬유제품 제조업	0.1	-3.2	0.1	0.3	44.6	0.2	0.9	23.6
의복의복액세서라모피제품 제조업	0.3	10.3	0.8	0.8	17.7	1.3	0.4	27.9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6	12.5	1.2	1.0	25.4	1.0	0.7	21.9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3	21.6	0.3	0.8	53.1	0.3	1.6	33.5
펠프종아종이제품 제조업	1.3	24.8	1.4	3.8	38.7	1.7	1.4	8.4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1	38.5	0.7	0.0	17.7	0.2	0.1	15.8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	0.7	68.9	0.0	2.0	27.0	0.1	22.2	20.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3.6	35.2	0.5	9.7	12.5	0.6	9.7	10.6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3	12.1	0.4	1.1	49.0	0.8	0.9	16.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7	31.5	0.5	1.4	27.0	0.6	1.4	17.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6	19.7	0.3	1.1	20.2	1.4	0.5	20.8
1차 금속 제조업	2.5	22.7	0.7	5.4	-12.8	0.8	4.4	-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	-6.5	1.7	2.1	11.9	1.5	0.9	1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60.9	19.6	3.0	11.5	7.0	0.8	9.6	14.9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	4.7	27.7	1.9	8.3	16.9	1.8	3.0	16.1
전기장비 제조업	3.2	21.7	1.2	6.2	3.8	2.0	1.9	7.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6.7	8.6	1.4	16.4	-2.2	1.6	6.5	10.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4.6	-3.9	1.1	13.4	26.3	1.1	8.0	2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	27.7	2.0	4.0	-5.4	2.2	1.1	0.5
가구 제조업	0.2	10.1	1.6	0.6	53.7	2.3	0.2	16.2
기타 제품 제조업	0.4	29.4	0.8	0.1	39.3	0.2	0.6	15.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23.2	0.0	0.0	0.0	0.0	0.0	-0.4
미분류	0.0	0.0	0.0	0.0	-47.8	0.0	4.7	102.1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	100.0	5.8	-	100.0	15.7
	금액(억 달러)	227.1	-	-	71.2	-	11,095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3. 한국의 대(對)쓰촨성 내수용 수출시장 현황

가.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 현황

- [총수출] 2014년 한국의 대쓰촨성 총수출은 21억 3,1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2.1% 증가하여 같은 기간 대중국 총수출 증가율(13.3%)을 크게 상회
 -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액이 2010년 6억 달러에서 2012년까지 27억 9,5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수출증가율도 급증하였으나,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무역방식별]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은 2010년 이후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가공무역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중국 수출구조와 유사한 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2013년부터 내수용 수출 비중이 재차 상승하고 있음.
 - 2010년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 비중은 85.2%에 달했으나, IT 부품 및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공무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내수용 수출 비중이 급감하면서 2012년 23.0%까지 감소함.
 - 2013년 한국의 대쓰촨성 총수출은 줄어든 반면 내수용 수출은 전년대비 40.6%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수출 감소 폭보다 내수용 수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면서 총수출 대비 내수용 수출 비중은 39.9%까지 상승함.
 - 2014년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 비중은 대중국 내수용 수출 비중(33.4%)보다 6.5%p 높은 수준

그림 5.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6. 한국의 대중국 및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 비중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가공단계별 수출

- [총수출 구조] 한국의 대쓰촨성 총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4%로,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79.3%)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임. 가공단계별로는 자본재 부품·부분품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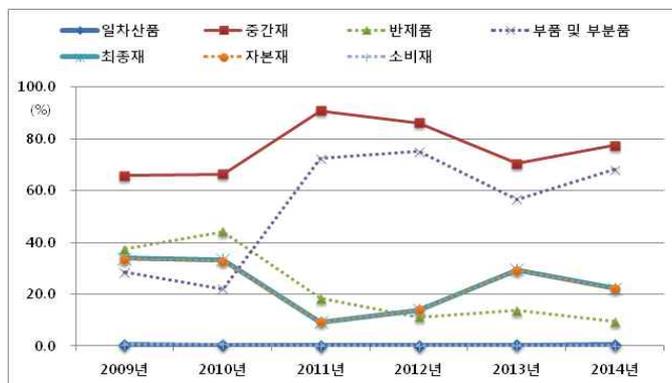
- 중간재 가운데 부품부분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비중은 2009년 28.5%에서 2014년 68.1%까지 확대되었으며,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57.3%에 달함.
- o 부품·부분품 수출은 자본재 부품·부분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55.2%에 달함.
- o 또한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409.0%에 달하였으나, 그 수출 비중은 4.6%에 머물렀음.
- 2010년 한국의 대쓰촨성 총수출 중 43.9%를 차지하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는 수출이 급감하면서 2014년 비중이 9.2%로 크게 위축됨.
- 최종재에 대한 내수용 수출은 2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에 수출이 집중

■ [내수용 수출구조] 총수출과 마찬가지로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은 중간재(70.7%)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 품목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총수출과 달리 내수용 수출은 반제품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가 내수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7%에 달함.
- o 반제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22.7%)이 쓰촨성 평균(15.8%)을 상회하며 수출 비중을 점차 확대
- 부품·부분품에 대한 수출 비중은 총수출에 비해 59.7%p 낮은 8.4%에 불과했으며, 수출증가율도 연평균 1.4%에 불과해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최종재에 대한 수출 비중은 중국 평균을 8.9%p 상회하는 29.1% 수준이었으나 수출증가율은 쓰촨성 평균을 하회함.
- o 최종재 수출은 자본재, 특히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28.8%)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중국 평균(14.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o 최근 5년간 내수용 소비재 수출은 57.4%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비중은 중국 평균(5.7%)을 크게 하회하는 0.3%에 불과
- o 수출 비중이 크게 낮았으나 최근 들어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39.0%), 내구소비재(145.4%), 반내구소비재(57.1%)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중 쓰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였으나, 총수출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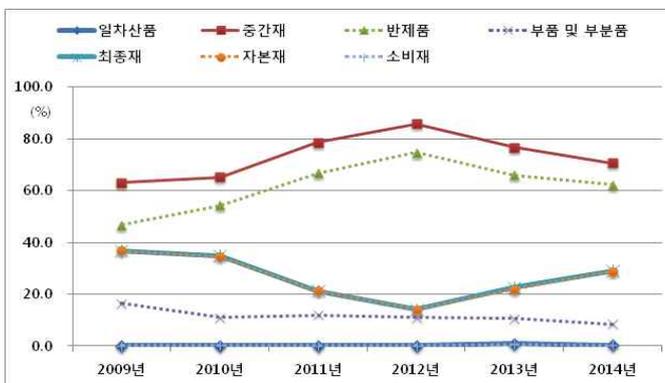
그림 7.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구조 변화(가공단계별)

(1) 총수출



자료: 중국 해관통계.

(2) 내수용 수출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6. 한국의 대쓰촨성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쓰촨성 총수출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0.4	32.4	1.0	0.2	37.4	0.2	1.1	3.9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0	0.0	0.0	0	0.0	0.0	64.8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4	32.4	1.0	0.2	37.4	0.2	1.1	3.9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0	0.0	0.0	0	0.0	0.0	-	
중간재	77.4	36.5	1.1	70.7	18.5	1.2	78.6	12.6	
반제품	9.3	0.1	0.3	62.3	22.7	1.8	46.6	10.2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612.2	1.0	0.0	0	0.0	0.0	37.9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9.2	0.0	0.3	59.7	22.3	1.9	42.7	10.2	
가공된 연료·윤활유	0.1	17.2	0.0	2.6	34.6	0.9	3.8	9.8	
부품·부분품	68.1	57.3	1.7	8.4	1.4	0.4	32.0	16.8	
자본재 부품·부분품	63.5	55.2	1.8	5.9	-5.5	0.3	25.1	16.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4.6	409.0	1.4	2.5	165.2	0.5	6.9	16.8	
최종재	22.2	21.5	1.2	29.1	10.5	1.9	20.2	16.0	
자본재	22.1	21.6	1.4	28.8	10.3	2.6	14.6	14.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22.1	21.6	1.4	28.8	10.3	2.6	14.5	15.2	
산업용 운송장비	0.0	-49.0	0.0	0.0	0	0.0	0.1	-8.0	
소비재	0.2	10.8	0.1	0.3	57.4	0.1	5.7	19.5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	0	0.0	0.0	0	0.0	0.0	23.7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0	-37.8	0.0	0.1	39.0	0.2	0.7	32.2	
승용차	0.0	0	0.0	0.0	0	0.0	2.8	14.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286.8	39.1	0.0	-	0.2	0.0	17.4	
내구소비재	0.0	4.3	0.2	0.1	145.4	0.2	0.7	41.1	
반내구소비재	0.0	18.0	0.1	0.1	57.1	0.3	0.6	19.4	
비내구소비재	0.1	15.9	0.2	0.0	57.8	0.1	0.8	22.6	
미분류	0.0	0	1.9	0.0	0	0.0	0.1	-28.4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32.2	1.1	100.0	15.8	1.4	100.0	13.0
	금액(억 달러)	21.3	-	-	8.5	-	-	625.1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품목별 내수용 수출] 내수용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47.2%가 집중되어 있음. 또한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LCD 패널, 벤젠, 테레프탈산 등 IT 부품과 석유화학 위주로 구성

- 반제품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출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이 4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쓰촨성 평균(8.5%)을 크게 넘어서는 24.9%에 달함.
- 반면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출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이 37.9%를 차지하고 있으나, -9.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그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냄.
- 하지만 화학분야는 최근 5년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IT 부품 분야는 -9.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중이 하락

- 최종재 중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수출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4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20.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냄.
- 대쓰촨성 수출 상위 10대 품목(HS-6단위 기준)에는 벤젠, 테레프탈산, 혼합 크실렌 이성체 등 7개 품목이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 집중됨.
- o 2014년 한국이 쓰촨성에 수출하는 내수용 제품 중 LCD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억 2,1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o 쓰촨성의 내수용 LCD 패널 수입시장의 91%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음.

표 7.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세부 업종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
중간재 (70.7)	반제품 (62.3)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59.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2.9	24.5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446	44.3	24.9
	부품·부분품 (8.4)	자본재 부품·부분품 (5.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8	37.9	-9.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7	7	-5.7
최종재 (29.1)	자본재(29.1)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28.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22	45.3	-20.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0	2.1	17.3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괄호 안의 수치는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8. 한국의 대쓰촨성의 내수용 수출 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억 달러)	해당 업종
1	9013.80	LCD 패널 기타	2.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	2902.20	벤젠(Benzene)	1.02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3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0.72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4	2902.44	혼합 크실렌 이성체	0.72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5	3707.90	기타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및 단일물품	0.43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6	7020.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0.2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3824.90	기타 조제점결제	0.26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8	2901.21	에틸렌	0.25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9	2710.12	정질석유 및 조제품	0.20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
10	2901.24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0.20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자료: 중국 해관통계.

다. 업종별 수출

■ [총수출 구조] 대쓰촨성 업종별 총수출은 전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출 집중도(80.1%)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임.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쓰촨성 상위 4대 수출업종은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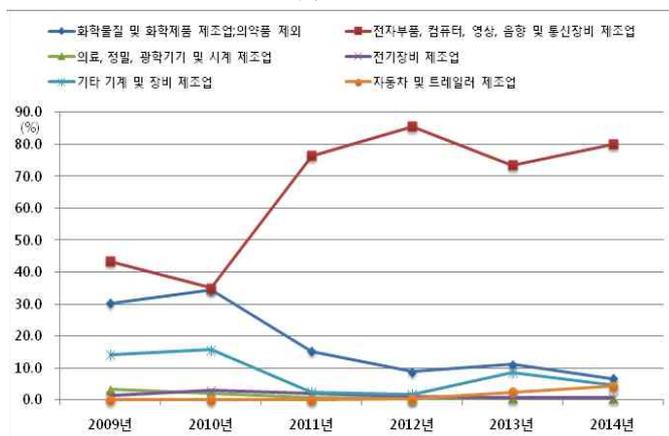
- 상위 4대 업종에 대한 수출 비중은 95.7%에 달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출이 2011년 전년대비 6.8배 증가하면서 수출 비중은 35.1%에서 76.5%로 급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49.4%에 달함.
- 2014년 6.7%의 수출 비중을 점유한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2.1%를 기록함.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은 4.6%의 수출 비중을 보였으나, 수출증가율은 쓰촨성 평균(32.1%)보다 크게 낮은 5.6% 수준
- 그 밖에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수출 비중이 4.3%로 크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30%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시현함.

■ [내수용 수출구조] 업종별 내수용 수출도 총수출과 마찬가지로 전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유화학 및 IT와 관련된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 수출이 집중됨.

- 2014년 기준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은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임.
- 총수출과 달리 내수용 수출에서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이 5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쓰촨성 평균(15.8%)을 크게 넘어서는 25.0%를 기록함.
- 이는 비중과 수출증가율 모두 중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나, 업종별 중국 내 비중은 2.5%에 불과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은 총수출에 비해 49.5%p 낮은 30.6%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쓰촨성 평균을 하회
- 한국의 쓰촨성에 대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수출은 대부분 가공무역 수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비중은 내수용 수출 중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24.4%로 평균을 상회
- 중국 내 비중은 10.9%로 매우 높은 편이며, 업종별 비중도 중국 평균(0.4%)을 상회
- 그밖에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25.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14.6%),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619.2%)은 수출 비중은 낮았으나 매우 높은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보인 업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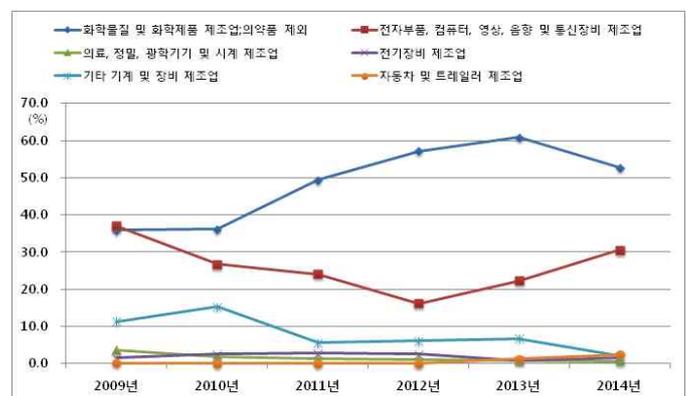
그림 8. 한국의 대쓰촨성 수출구조 변화(업종별)

(1) 총수출



자료: 중국 해관통계.

(2) 내수용 수출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9. 한국의 대쓰촨성 업종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쓰촨성 총수출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총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0.0	0	0.7	0.0	0	0.0	0.1	29.1	
광업	0.0	-67.4	0.0	0.0	-46.2	0.0	0.3	14.4	
금속 광업	0.0	0	0.0	0.0	0	0.0	0.1	2.0	
비금속광물 광업	0.0	-67.4	0.0	0.0	-46.2	0.0	0.2	21.5	
제조업	100.0	32.2	1.0	100.0	15.8	1.4	99.5	12.8	
식료품 제조업	0.0	-8.0	0.0	0.1	37.8	0.2	0.6	31.2	
음료 제조업	0.0	0	0.0	0.0	0	0.0	0.1	24.0	
담배 제조업	0.0	16.9	5.3	0.0	0	0.0	0.0	13.1	
섬유제품 제조업	0.0	28.4	0.0	0.0	84.0	0.0	0.5	21.4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0	-7.8	0.1	0.0	41.9	0.1	0.2	15.1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0	131.0	0.1	0.0	0	0.2	0.2	26.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0	12.3	0.0	0.0	0	0.0	0.0	19.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0	40.4	0.3	0.1	619.2	0.2	0.4	2.7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15.4	0.0	0.0	-39.3	0.0	0.0	16.7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	0.8	16.6	0.2	3.6	11.9	0.7	6.6	10.1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6.7	-2.1	0.5	52.7	25.0	2.5	29.2	10.7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0	20.9	0.1	0.0	0	0.1	0.2	14.7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5	28.4	0.3	1.6	44.1	0.9	2.5	1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3	-7.2	0.1	3.5	24.4	10.9	0.4	25.1	
1차 금속 제조업	0.3	-15.4	0.1	0.5	-18.0	0.1	6.3	2.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6	55.4	0.6	0.3	32.9	0.2	1.8	1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80.1	49.4	1.8	30.6	11.5	1.7	23.9	14.8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	0.6	-5.9	0.3	0.7	-16.9	0.3	3.0	25.9	
전기장비 제조업	0.6	11.6	0.3	1.5	15.9	0.8	2.5	13.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6	5.6	1.0	2.1	-17.4	0.3	10.1	16.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4.3	230.4	1.2	2.5	125.2	0.4	9.1	16.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	469.1	0.5	0.1	214.6	0.1	1.0	6.5	
가구 제조업	0.0	178.5	0.4	0.0	0	0.1	0.4	18.8	
기타 제품 제조업	0.1	9.3	0.6	0.0	54.1	0.1	0.4	45.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0	0	0.0	0	0	0.0	-	
미분류	0.0	0	0	0.0	0	0.0	0.1	-26.1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	100.0	32.1	1.1	100.0	15.8	1.4	100.0	12.6
전체	금액(억 달러)	21.3	-	-	8.5	-	-	625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4. 주요국의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가. 주요국의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쓰촨성 수입시장] 2014년 쓰촨성 총수입시장에서 주요국 5개는 57.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이보다 소폭 낮은 54.8%를 점유하고 있음.⁶⁾

- 쓰촨성 총수입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2.3%까지 상승한 이후 2014년 57.3%로 하락함.
- 2014년 기준 쓰촨성 총수입시장에서 미국은 25.5%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주요국 중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9.4%)과 일본(9.2%)이 뒤를 잇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은 2009년에 각각 16.5%와 11.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나 2014년 각각 9.2%, 5.7%로 크게 낮아짐. 반면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20.9%에서 2012년 13.8%로 낮아진 후 2014년 25.5%로 크게 확대
- 한국과 대만의 대쓰촨성 총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2.2%와 32.1%를 기록하며 쓰촨성 수입증가율(17.7%)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2009년 5.3%와 4.2%에서 2014년 9.4%와 7.5%로 확대
-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57.9%에서 2014년 54.8%로 소폭 축소됨.
-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쓰촨성 평균(5.8%)을 상회한 한국·대만·미국은 2009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시장점유율 확대(4.3%p)가 두드러짐.
- 반면 일본과 독일은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쓰촨성 내 시장점유율이 2009년 대비 축소되었는데, 특히 독일의 시장점유율 하락(8.6%p 하락)이 크게 나타남.

■ [한국의 시장점유율] 한국은 2014년 쓰촨성 총수입시장의 9.4%를 점유하여 주요 5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하였으며,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11.9%를 점유하며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2009년 쓰촨성 총수입시장에서 5.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한국은 2012년 14.4%까지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2014년 9.4%를 차지함.
- 한국의 대쓰촨성 총수출 증가율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32.2%를 기록
- 한국은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2009년 7.6%에서 2014년 11.9%로 시장점유율이 4.3%p 상승함.

표 10. 주요 국기별 쓰촨성 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연도	쓰촨성 총수입						쓰촨성 내수용 수입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2009년	100.0	5.3	4.2	16.5	20.9	11.3	100.0	7.6	3.9	20.8	9.7	15.9
2010년	100.0	4.3	5.5	17.9	24.2	7.8	100.0	8.1	4.1	23.2	7.7	8.5
2011년	100.0	10.4	7.7	19.7	16.8	7.7	100.0	8.3	5.9	23.9	8.2	9.4
2012년	100.0	14.4	9.2	15.3	13.8	6.9	100.0	8.6	6.0	20.8	8.2	8.7
2013년	100.0	11.1	8.6	12.2	14.7	5.2	100.0	11.7	6.4	13.5	10.9	7.0
2014년	100.0	9.4	7.5	9.2	25.5	5.7	100.0	11.9	6.1	18.0	11.5	7.3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17.7	32.2	32.1	4.7	22.5	2.6	5.8	15.8	16.2	2.9	9.5	-9.3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산출.

6) 주요국은 중국의 5대 수입대상국인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을 가리킴.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시장점유율] 2014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15.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한국은 내수용 중간재 시장에서 15.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반제품 시장에서는 점유율 30.0%로 주요국 가운데 수위를 차지
-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출이 2009년 1억 8,555만 달러에서 2014년 5억 715만 달러로 2.7배 증가하면서 반제품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5.9%p 상승함.⁷⁾
- 반면 부품·부분품에서 한국은 3.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 최종재의 경우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대비 각각 3.2%p, 1.1%p, 1.9%p, 1.0%p 상승하였으나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보임.

■ [가공단계별 점유율 현황] 가공단계별로 구분하여 볼 때 일차상품에서는 미국, 중간재에서는 한국과 일본, 최종재에서는 일본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

- 중간재의 경우 반제품에서는 한국(30.0%), 부품·부분품에서는 일본(18.4%)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전체 중간재 시장에서 한국·대만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6%p, 4.7%p 확대된 반면, 일본과 미국,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3%p, 1.8%p, 8.4%p 하락함.
-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독일은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자본재 부품·부분품 등에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간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초래
- 일본은 내수용 중간재 시장에서 2009년 20%에서 2014년 15.7%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과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
- 미국은 2014년 일차상품 시장에서 9.4%를 점유하며 다른 주요국을 압도함.
-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수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41.4%에서 2014년 5.5%로 크게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수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8%에서 12.0%로 확대
- 소비재의 경우 2014년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78.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일본은 반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 대만은 기타·비산업용 운송장비, 미국은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과 내구소비재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

7) 2014년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액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가 59.6%의 비중을 차지



표 11.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기공단계별)

(단위: %)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일차상품	0.0	0.2	0.0	7.4	0.0	0.2	0.0	0.0	9.4	0.0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0	41.4	0.0	0.0	0.0	0.0	5.5	0.0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1	0.2	0.0	1.8	0.0	0.3	0.0	0.0	12.0	0.0
미가공 연료유탄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간재	9.8	4.3	20.0	11.1	12.6	15.4	9.0	15.7	10.4	4.2
반제품	13.4	2.2	12.0	7.9	12.0	30.0	7.9	12.3	10.4	3.9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0	10.6	2.3	0.0	2.0	0.0	52.0	30.1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3.2	2.2	12.0	7.9	12.1	29.1	8.0	12.4	10.3	3.8
가공된 연료유탄유	63.1	1.1	16.0	4.0	3.0	n.a	0.7	15.2	7.6	1.1
부품부분품	5.6	6.7	29.5	14.8	13.3	3.4	9.9	18.4	10.3	4.5
자본재 부품부분품	6.6	8.0	24.4	12.8	15.7	4.4	18.4	11.2	12.1	8.0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0.1	0.0	56.8	25.5	0.3	2.2	0.1	26.8	8.2	0.5
최종재	7.3	4.6	28.8	8.8	25.4	10.3	6.0	28.1	14.2	14.9
자본재	8.4	5.2	21.9	9.6	28.9	12.4	6.7	17.3	15.6	17.6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9.7	6.0	25.5	11.0	17.4	12.9	6.9	18.0	11.9	15.0
산업용 운송장비	0.1	0.0	0.0	1.0	98.8	0.0	0.3	0.0	n.a	82.1
소비재	0.1	0.5	77.4	3.9	1.0	0.7	2.6	78.7	7.4	2.3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9	0.0	0.1	30.9	2.9	2.0	0.1	0.0	30.8	3.7
승용차	0.0	0.0	93.6	1.2	0.0	0.0	0.0	n.a	0.0	0.0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56.7	0.0	0.0	43.3	0.0	76.9	0.0	n.a	0.1
내구소비재	0.2	30.7	1.2	19.1	6.8	2.1	11.5	3.9	13.5	1.2
반내구소비재	0.4	0.3	46.6	4.7	0.9	1.4	0.1	30.8	6.5	2.9
비내구소비재	0.3	0.1	18.7	11.8	13.3	0.4	4.5	1.2	4.7	6.5
미분류	0.0	0.0	0.0	2.9	0.0	0.0	0.0	0.0	2.5	0.0
전체	7.6	3.9	20.8	9.7	15.9	11.9	6.9	18.0	11.5	7.3

주: 2014년 한국의 가공된 연료유탄유(중간재), 일본의 승용차(최종재), 미국의 산업용 운송장비(최종재),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최종재)의 경우 중국 해관통계 데이터 불일치로 표에서는 n.a 값으로 표기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⁸⁾ 분석 결과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 중 자본재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냄. 특히 중간재의 경우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중간재 가운데 반제품에서만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는 더욱 강화됨.

8)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어느 국가의 특정 수출품목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점유율과 달리 경제 및 수출 규모가 상이한 국가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 지표는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변형한 것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MCA_{jS}^i = \frac{X_{jS}^i / X_{jS}^i}{WX_{jS}^i / WX_{jS}^i} \quad (\text{단 } MCA_{jS}^i \text{ 는 } i \text{ 국 } j \text{ 상품 의 쓰촨성에서의 시장비교우위지수, } X_{jS}^i \text{ 는 } i \text{ 국의 대쓰촨성 } j \text{ 상품 수출액, } X_{jS}^i \text{ 는 } i \text{ 국의 대쓰촨성 총수출액, } WX_{jS}^i \text{ 는 전 세계의 대쓰촨성 } j \text{ 상품 수출액, } WX_{jS}^i \text{ 는 전 세계의 대쓰촨성 총수출액})$$

RCA와 마찬가지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이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반제품 중에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가공된 연료·유탄유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공된 연료·유탄유에서 비교우위가 크게 강화됨.
- o 반면 부품·부분품은 비교열위 품목이었으며, 2009년에 비해 더욱 악화됨.
- 최종재 가운데 자본재에서만 비교우위를 보였으며, 소비재의 경우 모든 품목이 비교열위를 나타냄.

■ [가공단계별 시장비교우위지수] 대만과 일본은 중간재 중 부품·부분품과 최종재, 미국과 독일은 최종재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나타냄.

- 일차상품에서는 주요국 모두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음. 다만 미국은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에서 비교우위를 보임.
- 중간재의 경우 한국만 비교우위를 나타냈으며, 부품·부분품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비교우위를 나타냄.
- 최종재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 모두 비교우위를 나타냈으며, 특히 독일이 가장 우세
- o 자본재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모두 비교우위를 나타냈으며, 특히 미국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
- o 소비재는 일본만이 비교우위를 보였으나 세부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반내구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소비재에서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나타냄.

표 12. 주요 국가의 쓰촨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가공단계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일차상품	0.01	0.05	0.00	0.76	0.00	0.02	0.05	0.00	0.82	0.00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0	4.26	0.00	0.00	0.00	0.00	0.47	0.00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01	0.06	0.00	0.18	0.00	0.02	0.08	0.00	1.04	0.00
미가공 연료·유탄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간재	1.29	1.11	0.96	1.14	0.79	1.29	0.93	0.87	0.90	0.58
반제품	1.77	0.56	0.57	0.81	0.76	2.51	0.62	0.68	0.91	0.53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0	1.10	0.14	0.00	0.00	0.00	4.51	4.10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74	0.57	0.58	0.81	0.76	2.44	0.63	0.69	0.89	0.52
가공된 연료·유탄유	8.30	0.29	0.77	0.41	0.19	13.33	0.00	0.84	0.66	0.15
부품·부분품	0.73	1.75	1.42	1.52	0.84	0.28	1.19	1.02	0.89	0.62
자본재 부품·부분품	0.87	2.07	1.17	1.32	0.99	0.37	2.20	0.62	1.05	1.09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0.01	0.00	2.73	2.62	0.02	0.18	0.01	1.48	0.71	0.07
최종재	0.96	1.19	1.39	0.91	1.60	0.86	1.44	1.56	1.23	2.03
자본재	1.10	1.34	1.05	0.98	1.82	1.04	1.71	0.96	1.36	2.40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28	1.56	1.23	1.13	1.09	1.08	1.78	1.00	1.03	2.05
산업용 운송장비	0.01	0.00	0.00	0.11	6.23	0.00	0.05	0.00	9.47	11.18
소비재	0.02	0.12	3.72	0.40	0.06	0.06	0.17	4.36	0.65	0.31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11	0.01	0.00	3.18	0.18	0.17	0.01	0.00	2.67	0.50
승용차	0.00	0.00	4.50	0.12	0.00	0.00	0.00	10.79	0.00	0.00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0	14.71	0.00	0.00	2.73	0.00	0.62	0.00	13.48	0.01
내구소비재	0.03	7.97	0.06	1.97	0.43	0.17	0.98	0.21	1.17	0.17
반내구소비재	0.06	0.07	2.24	0.48	0.06	0.12	0.02	1.71	0.57	0.40
비내구소비재	0.04	0.01	0.90	1.21	0.84	0.03	0.47	0.07	0.41	0.89
미분류	0.00	0.00	0.00	0.30	0.00	0.00	0.00	0.00	0.22	0.00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코드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업종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점유율] 2014년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 중 한국은 제조업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세부 업종에서는 2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함.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64.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에서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21.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 31.7%의 시장점유율(2위)을 차지함.
 - 그 밖에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14.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7.4%) 등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됨.
- [국가별 점유율]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1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9개 업종, 독일은 3개 업종, 한국은 2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함.
 - 제조업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은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온 반면, 일본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나타냄.
 - 일본은 △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45.8%) △ 비금속 광물제품(43.8%) △ 자동차·트레일러(45.8%) 등의 제조업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았음.
 - 반면에 △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26.6%p)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45.4%p) △ 가구 제조업(41.1%p)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
 - 내수용 수입 상위 5대 업종⁹⁾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경우 일본이 18.7%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점유한 반면,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5%의 점유율을 차지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일본이 45.8%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대만이 34.8%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이 31.7%를 점유함. 전통적으로 대만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임.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한국이 64.7%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26.5%p)
 -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은 미국이 줄곧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에 비해 4.6%p 낮아진 1.0%를 나타냄.
 - 각국별로 제조업 시장점유율의 등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은 제조업 시장점유율을 대체로 꾸준히 높여왔으나 미국은 소폭 상승, 일본과 독일은 대체로 하락 추세
 - 농림수산업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40.5%에서 2014년 7.5%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함.

9)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이 이에 해당함.

표 13. 쓰촨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업종별)

(단위: %)

분류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농림수산업	0.0	0.0	0.0	40.5	0.0	0.0	0.0	0.0	7.5	0.0
광업	0.1	0.2	0.0	0.6	0.0	0.0	0.6	0.0	0.3	0.0
금속 광업	0.0	0.0	0.0	0.3	0.0	0.0	0.0	0.0	0.1	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6	1.8	0.4	2.5	0.0	0.0	7.5	0.4	2.3	0.1
제조업	8.6	4.3	23.6	10.1	18.0	13.1	6.7	19.7	12.4	8.0
식료품 제조업	0.2	0.0	0.0	10.0	0.9	0.7	0.0	0.0	81.6	3.9
음료 제조업	0.0	0.0	0.0	0.0	0.0	0.2	0.0	0.0	10.5	1.2
담배 제조업	0.0	0.0	0.0	24.6	75.4	0.0	0.0	0.0	0.0	0.5
섬유제품 제조업	0.2	0.1	29.8	15.7	0.4	0.7	1.0	14.0	11.8	2.3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1	0.0	55.2	0.1	0.0	0.1	0.0	45.8	1.4	0.0
건축기방신발 제조업	0.0	0.0	2.3	29.2	0.6	0.3	0.0	0.4	3.9	0.1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0	0.1	0.5	18.6	0.0	0.0	0.0	0.1	6.8	0.0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0	0.0	2.0	2.2	1.5	0.2	0.0	0.2	13.0	0.3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9	0.1	6.9	52.1	0.2	0.0	0.0	1.7	n.a	81.1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	39.9	0.2	30.9	12.2	0.5	21.2	0.1	4.3	6.3	0.1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38.2	7.2	10.9	9.0	2.8	64.7	8.5	12.6	11.4	2.0
의료용 물질·약품 제조업	0.0	0.0	3.9	17.2	14.7	0.2	2.8	1.3	4.9	7.3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4	0.4	27.8	27.4	21.7	14.0	2.0	12.4	17.0	1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5	7.2	28.8	3.8	7.3	37.4	3.0	43.8	3.0	14.8
1차 금속 제조업	1.6	0.1	11.3	5.8	19.0	1.2	0.3	12.7	2.4	5.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8	0.7	13.5	21.1	8.4	1.8	1.9	17.9	17.1	4.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5.8	25.7	8.9	5.4	3.1	31.7	34.8	7.6	7.1	3.3
의료·정밀·광학·기타·기계 제조업	5.6	2.7	17.0	19.8	19.3	1.0	1.2	15.1	22.7	18.3
전기장비 제조업	1.7	0.2	29.1	5.5	12.5	2.9	1.9	22.1	10.3	9.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5	1.2	33.0	14.5	23.6	1.5	5.4	18.7	11.0	17.3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1	0.0	91.2	2.3	2.7	2.2	0.0	45.8	0.3	0.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5.4	12.7	65.5	0.2	0.3	45.7	59.8	21.6
가구 제조업	0.0	5.4	52.8	12.4	3.9	0.6	0.1	11.7	7.1	1.1
기타 제품 제조업	2.0	0.0	1.8	3.9	73.4	3.3	0.3	7.0	16.9	1.4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분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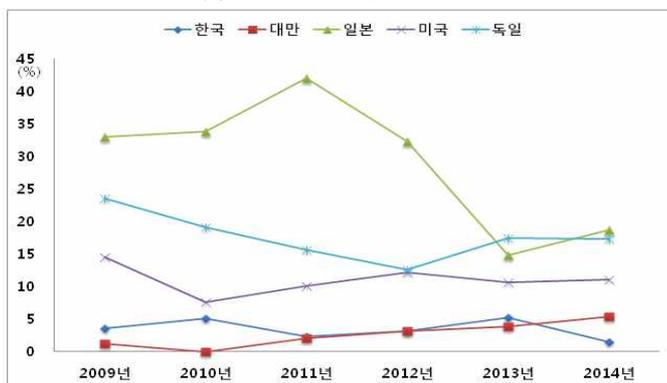
주: 1)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주: 2) 2014년 미국의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분야 시장점유율은 중국 해관통계 데이터 불일치로 표에서는 n.a 값으로 표기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9. 주요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국별 시장점유율 추이

(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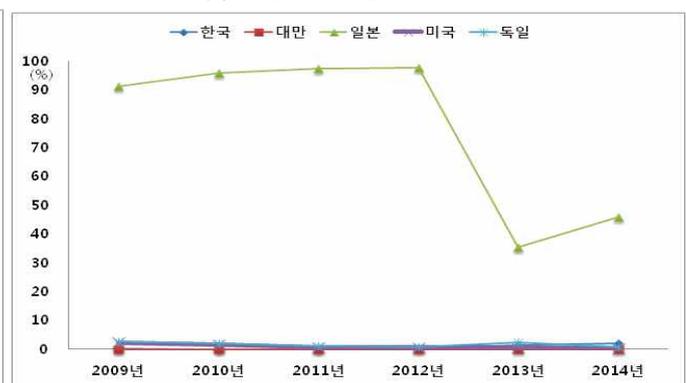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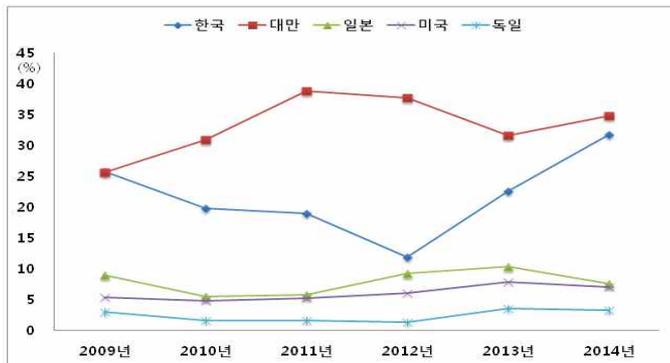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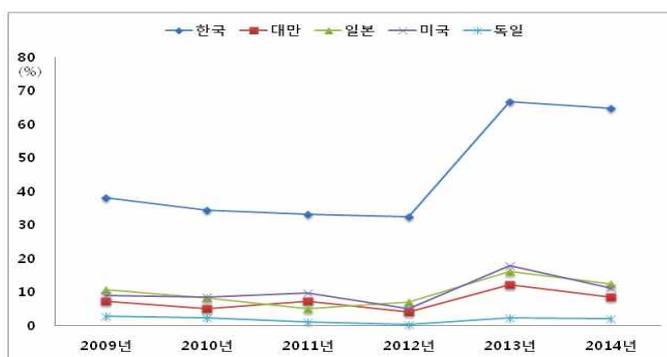


그림 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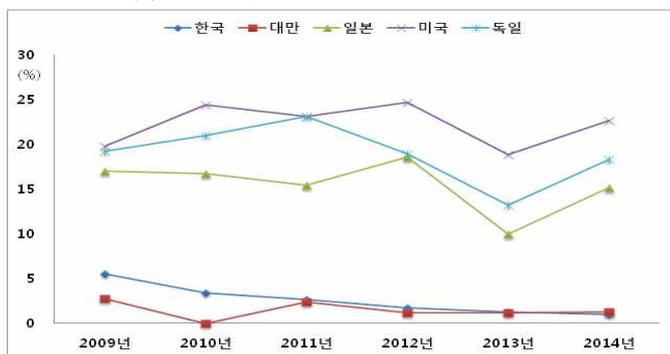
(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4)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



(6) 전기장비 제조업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 중 비교우위를 갖는 수출 업종이 2009년 4개에서 2014년 5개로 증가함. 그러나 2009년 대비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교우위가 전반적으로 약화됨.
 -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비교우위로 전환
-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에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종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음.¹⁰⁾

■ [주요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 주요국 모두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대비 비교우위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쓰촨성의 내수용 수입 상위 5대 업종에서는 독일이 대체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음.¹¹⁾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비교우위를 나타냄.

10)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 이에 해당함.

11)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이 이에 해당함.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일본만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업종이었으나, 2009년에 비해 비교우위는 다소 약화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한국과 대만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만의 비교우위가 크게 나타남.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도 대만과 한국만이 비교우위를 나타냈으며, 특히 한국의 비교우위가 강하게 나타남.
-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 제조업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비교우위를 확보함.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비교우위는 다소 약화된 반면 독일은 강화된 업종임.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 중 한국은 5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였으며, 대만은 2개, 일본 6개, 미국 9개, 독일 8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 2009년과 비교하면 대만·일본·미국은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업종의 수가 감소한 반면, 한국은 증가함.

표 14. 주요 국가의 쓰촨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업종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농림수산업	0.00	0.00	0.00	4.17	0.00	0.00	0.00	0.00	0.65	0.00
광업	0.01	0.05	0.00	0.06	0.00	0.00	0.10	0.00	0.02	0.00
금속 광업	0.00	0.00	0.00	0.04	0.00	0.00	0.00	0.00	0.01	0.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08	0.46	0.02	0.26	0.00	0.00	1.22	0.02	0.20	0.01
제조업	1.13	1.13	1.13	1.04	1.13	1.09	1.09	1.09	1.07	1.09
식료품 제조업	0.03	0.00	0.00	1.03	0.06	0.06	0.00	0.00	7.08	0.53
음료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91	0.17
담배 제조업	0.00	0.00	0.00	2.53	4.75	0.00	0.00	0.00	0.00	0.07
섬유제품 제조업	0.03	0.02	1.43	1.62	0.03	0.06	0.17	0.77	1.03	0.31
의복의복액세서라모피제품 제조업	0.01	0.00	2.65	0.01	0.00	0.01	0.00	2.54	0.12	0.00
가족가방신발 제조업	0.00	0.00	0.11	3.01	0.04	0.03	0.00	0.02	0.34	0.01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00	0.01	0.02	1.91	0.00	0.00	0.00	0.01	0.59	0.00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00	0.00	0.10	0.22	0.10	0.02	0.01	0.01	1.13	0.04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11	0.02	0.33	5.36	0.01	0.00	0.00	0.10	11.81	11.04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	5.24	0.05	1.49	1.25	0.03	1.78	0.01	0.24	0.55	0.01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5.02	1.87	0.52	0.93	0.17	5.43	1.38	0.70	0.99	0.28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00	0.00	0.19	1.77	0.93	0.02	0.46	0.07	0.43	1.00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98	0.09	1.34	2.82	1.37	1.17	0.33	0.69	1.48	1.5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14	1.86	1.38	0.39	0.46	3.14	0.48	2.43	0.26	2.02
1차 금속 제조업	0.21	0.02	0.54	0.60	1.20	0.10	0.05	0.70	0.21	0.7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10	0.19	0.65	2.17	0.53	0.15	0.31	0.99	1.48	0.6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39	6.66	0.43	0.56	0.19	2.66	5.66	0.42	0.61	0.45
의료정밀광학 기가시계 제조업	0.73	0.71	0.82	2.04	1.21	0.08	0.20	0.84	1.97	2.49
전기장비 제조업	0.22	0.05	1.40	0.56	0.79	0.25	0.31	1.23	0.89	1.2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0.47	0.31	1.59	1.49	1.48	0.13	0.88	1.04	0.96	2.35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02	0.00	4.39	0.23	0.17	0.19	0.01	2.54	0.03	0.0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0	0.01	0.26	1.31	4.13	0.01	0.04	2.53	5.19	2.94
가구 제조업	0.00	1.41	2.54	1.28	0.25	0.05	0.01	0.65	0.62	0.15
기타 제품 제조업	0.26	0.00	0.08	0.40	4.63	0.28	0.05	0.39	1.47	0.19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미분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종합 및 시사점

- [쓰촨성 내수용 수입] 쓰촨성은 총수입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30.8%)이 중국 평균(56.6%)에 비해 크게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8%)도 중국 평균(15.7%)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중국의 수입구조가 가공무역 수입 중심에서 내수용 수입 중심으로 전환 중인 것과 달리 쓰촨성은 가공무역 수입의 비중(43.6%)이 내수용 수입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IT 제조기업들이 대거 이전해 오면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급증하였기 때문
 - 총수입 중 IT 제조와 관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60.9%에 달함.
 - 내수용 수입은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54.7%), 업종별로는 제조업(91.4%)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임.
 - 가공단계별 세부 품목에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24.5%)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26.7%)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큼.
 - 세부 업종에서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6.4%)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3.4%)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큼.
- [한국의 수출] 한국은 2010년부터 IT 부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위주로 한 중간재 수출이 늘면서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내수용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 비중은 39.9%까지 상승
 -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 비중은 2010년 85.2%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됨.
 - 한국의 대쓰촨성 내수용 수출은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70.7%), 업종별로는 제조업(100.0%) 중심의 수출구조임.
 - 가공단계별 세부 품목에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59.7%)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28.8%)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큼.
 - 세부 업종에서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52.7%)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30.6%)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큼.
 - HS-6단위 기준 수출 상위 10대 품목도 액정디스플레이(LCD), 벤젠, 테레프탈산 등 IT 부품과 석유화학 위주로 구성됨.
- [수입시장 내 경쟁]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을 통해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을 도출한 결과,¹²⁾ 한국은 가공단계별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서 경쟁우위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냄.
 - 가공단계별로 구분할 때 쓰촨성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시장에서 경쟁국이 없는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업종 중에서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은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반면,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는 대만이 주요 경쟁국으로 나타남.

12) 앞서의 시장점유율 분석과 시장비교우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공단계별 또는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위 이면서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품목(또는 업종)을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품목(또는 업종)으로 분류했으며, 해당 품목(또는 업종)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국가를 수입시장 내 경쟁국가로 분류함.

- [정책적 시사점] 쓰촨성은 내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시장이 크고, 유통·소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비 잠재력이 큼. 따라서 쓰촨성이 가지고 있는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여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쓰촨성의 중심도시인 청두시는 주변의 다른 성(省)급 지역에서 원정 쇼핑을 올 정도로 유통·소비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 고급소비재뿐 아니라 의류, 패션 액세서리, 스마트기기 등과 같은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쓰촨성을 포함한 중국 서남지역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청두시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두시는 2016년까지 쌍리우(双流) 보세구 내 수입상품 면세점(3,000㎡)을 비롯하여 시내 6개 지역에 유아용품, 주방용품, 냉동해산물 등의 수입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면세점을 개장할 계획임. 이러한 현지 유통망을 수출기업이나 현지 대행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국제품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 농식품은 전문 검역시설과 인력이 갖춰진 연해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수입된 후 중국 내 육상물류를 이용하여 내륙지역으로 유통됨으로써 가격경쟁력 약화·품질 저하·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식품의 품질 및 신선도 유지, 제품의 원활한 공급,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냉장물류망(콜드체인) 구축이나 전문 물류업체 확보, 물류비용 보조, 물류창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함.
 - 유행에 민감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소비자별로 다양한 기호가 나타나는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 제품군에 대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거나 고급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5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쓰촨성 정부는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간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통관, 지식재산권 침해 등 현지 내수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채널로 정부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농식품·화장품 등 통관 과정에서 검역이나 안전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현실적으로 연해지역을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내륙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세관 등 정부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데, 정부간 협의체는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음.
 -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쓰촨성 등의 내륙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을 면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피해와 관련한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내륙지역의 경우 연해지역에 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표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쓰촨성은 서부대개발·일대일로·청위경제구 등 서부 내륙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발전전략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항공·도로·철도 등 내륙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지에서 구축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쓰촨성은 유럽, 중앙아시아 등과의 교역 확대와 교역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청두에서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연결되는 롱오우(蓉欧) 국제화물철도를 지난 2013년에 개통한 바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향후 소비재 수입을 확대할 예정¹³⁾
- 통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롱오우 국제화물철도를 이용할 경우 청두에서 폴란드까지 10일 만에 도착 가능함.¹⁴⁾
- 쓰촨성 현지에 구축되고 있는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중국 내수시장 확대뿐 아니라 서부 내륙지역과 인접해 있는 중앙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직접투자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쓰촨성은 2020년까지 청두를 중심으로 한 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속¹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국 서부(쓰촨) 수입전시회 및 국제투자대회(中国西部(四川)进口展 国际投资大会)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외교역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함.¹⁶⁾
-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박람회나 전시회는 대내외 교역을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적 행사로 거행되는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출 상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KIEP

13) CRI online(2015. 11. 18), 「成都铁路口岸整车进口口岸正式通过验收」.

14) 四川日报网(2015. 4. 20), 「贴地飞 蓉欧快铁再次提速 连东西 铺就黄金物流通道」.

15) 四川日报(2015. 4. 2), 「四川物流业发展规划出炉: 实现四川与全球主要经济体直通互联」.

16) 매년 10월 개최되는 서부박람회는 서부지역의 중요 상품교역 및 외자투자유치 플랫폼으로 부상함.

참고문헌

[국문자료]

- 양평섭 외, 2013.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연구보고서 13-21. p. 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종혁. 2012. 「쓰촨성 청두시(四川省 成都市) 소비시장 분석」.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2-07. p.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종혁, 박현정. 2014.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문자료]

- 四川省对外贸易统计资料.
- 중국해관통계.
- CRI online(2015. 11. 18), 「成都铁路口岸整车进口口岸正式通过验收」.
- 四川日报网(2015. 4. 20), 「贴地飞 蓉欧快铁再次提速 连东西 铺就黄金物流通道」.
- 四川日报(2015. 4. 2), 「四川物流业发展规划出炉: 实现四川与全球主要经济体直通互联」.

[웹사이트]

- CEIC.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쓰촨성 상무청(<http://www.sccom.gov.cn>).